



언론인의 책임

2015 - 3201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1월 10일자 「‘내로남불’ 오재원 빠던에 사이다 외친 야구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프리미어12] ‘내로남불’ 오재원 빠던에 사이다 외친 야구팬

입력 2015.11.20 07:00

오재원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준결승 9회 두 번째 타석에서 큼지막한 타구를 날린 뒤 배트플립을 선보였다.

“같은 팀이 볼 땐 즐거운 게 오재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빠던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 내야수 오재원(두산 베어스)의 ‘빠던(타격 후 배트를 던지는 행위)’은 팬들에게 마치 한 모금 사이다와 같은 짜릿한 청량감을 선사했다. 그동안 KBO 리그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오재원은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상대팀 팬들에게 밉보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표팀’ 오재원의 빠던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오재원은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일본과의 준결승 경기 9회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다. 오재원에게 찾아온 두 번째 타석이었다. 공을 때린 뒤 오재원은 홈런을 직감한 듯 배트를 던져버렸다. 타구는 담장을 넘지 못했지만 야구팬들은 오재원의 통쾌한 빠던에 열광했다.

이대호의 역전 적시타만큼이나 오재원의 빠던은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한국

팬들은 경기 일정 변경, 자국심판 배정 등의 문제로 일본에 불만을 가져왔다. 빙빙 돌면서 날아간 그의 배트는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9회 첫 타석 대타로 등장한 오재원은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손아섭, 정근우가 연속 안타를 때려냈다. 오재원은 한국 대표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날 오재원은 대표팀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주인공이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오재원은 또 밋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리액션은 두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상대팀 팬들에겐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결승전 이후 오재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다. ‘급호감’ ‘국민 빠던’ ‘근성 갑’ ‘승부욕’ 등의 수식어도 뒤따랐다.

오재원이 부정적인 시각에 가려졌던 야구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아직 남은 결승전에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가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기자 c***ain@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83698&code=61161211&sid1=spo&cp= nv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제목에 ‘내로남불’이니 ‘빠던’이니 ‘사이다 외친’이니 따위로 은어를 잔뜩 사용하였다. 기사에는 이 같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기에 독자가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그러나 이 제목만을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은어의 남발이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재활

주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6년 1월 23일자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 원가 알고 가실게요」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1.23. 00:35〉

『[‘가격 거품’ 부르는 유통구조]

85만원에 수입한 핸드백, 매장서는 179만원에 판매
 입력 2016.01.21 18:33:13 수정 2016.01.22 02:42:33

해외 명품의 ‘배짱 영업’
 한국 시장서 고가정책 고수
 환율 떨어져도 제품가 반영 안해

해외 명품업체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 고가정책을 고수하며 ‘배짱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자가 저렴하게 들여오게 하는 병행수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품 신뢰도나 사후서비스 등을 한층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명품 핸드백과 지갑은 수입 원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100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수입 핸드백은 평균 85만7000원에 들여와 매장에서 179만3214원에 판매하며, 지갑은 평균 26만8000원에 수입해 62만5972원에 팔았다. 격차가 각각 2.09배, 2.34배에 이른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유명 수입 핸드백과 지갑 49종의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1개 제품이 해외보다 적게는 3.9%, 많게는 56.3% 비쌌다. 코치 ‘키트캐리올토트’는 국내 평균가가 72만3600원지만 해외에선 평균 46만3019원으로 격차가 56.3%에 달했다. 해외에서 평균 137만7070원인 루이비통 ‘키폴45’는 국내에선 204만5000원으로 48.5% 높았고, 구찌 ‘디스코백’은 34.2%, 페라가모 ‘사피아노더블간치니윌렛’은 27.8% 비쌌다.

한 명품업체 관계자는 “제조원가와 환율, 관세, 운영비 외에도 시장 규모나 특성 등을 반영해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가격 차이가 이처럼 크게 벌어지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에서 제품을 산 뒤 자국에서 되파는 ‘명품 재테크’는 물론 전문 구매대행업자까지 성업 중이다.

환율 변동, 원자재값 상승 등 인상 요인은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웬만해선 값을 내리지 않는 ‘이중잣대’도 자주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고가 가방, 시계 등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세금 인하분을 고스란히 챙겼다.

당시 정부가 가격 인하 현황을 조사했지만 샤넬, 디올, 구찌 등은 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두 달 뒤 과세 기준을 ‘원위치’시켰다. 연례행사 같은 가격 인상 탓에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패션 트렌드’에선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핵심 시장으로 대우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 기자 t***is@hankyung.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수입 명품이 유독 한국에서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원문 제목도 그에 걸맞게 「85만원에 수입한 핸드백, 매장서는 179만원에 판매」 「해외 명품의 ‘배짱 영업」 등으로 붙였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원가 알고 가실게요」로 둔갑했다.

‘가실게요’는 우리말을 잘못 쓰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는 표현 ‘하실게요’ 투의 한 형태이다. ‘가실게요’는 어간 ‘가’에 어미 ‘시+ㄹ게+요’의 구성이다. ‘시’는 높이는 의미, ‘ㄹ게’는 말하는 이의 약속 또는 의지를 밝히는 기능을 한다. 상대를 높이는 어미와 내 의지를 밝히는 어미를 같이 쓰는 건 우리말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호갱님, 180만원 명품백 수입원가 알고 가세요」가 옳다.

특히 ‘~하고 가실게요’란 유행어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KBS2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는 한 한글 단체로부터 대본수정 요청을 받고 방송 도중 이 같은 표현을 잘못된 것이라고 자막에 고지한 바 있다.

편집자는 ‘가실게요’를 풍자의 의미로 썼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실게요’ 투가, 그 잘못은 알려지지 않은 채 널리 쓰이는 현실에서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지적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